***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이 움직임***

**4/3 월요일**

***아침의 누림***

**엡 1:4-5, 9-10**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 2:4**  
**4**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의 일들을 판결하시리라. 그들은 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되리니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칼을 드는 일도 없고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는 일도 없으리라.

**사 11:4**  
**4** 다만 그분은 가난한 이들을 의로 재판하시며 땅의 고통받는 이들을 공정하게 판결하시리라. 그분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시고 그분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들을 죽이시리라.

**고전 10:11**  
**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역대기상과 역대기하의 중심 사상…은 첫째, 아담부터 사무엘까지의 계보를 포함하는 인간 역사 안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한 완전한 연대기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 연대기는 다음 사항을 보여 준다.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써 인성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실 길을 준비하시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그분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중점적으로 보지만, 역대기상과 역대기하는 인류 전체를 중점적으로 본다. 따라서 사무엘 부터가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께 이르는 계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계보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누가복음3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계보와는 일치한다. 마태복음 1장의 조망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좁은 조망이고, 누가복음 3장의 조망은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넓은 조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한 족속을 위한 분만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전체를 위한 분이심을 보여 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 1장, 9-10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인간 역사 안에 있음을 보아야 한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서 인간 역사를 통해 움직이셨고 여전히 움직이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나는 1918년 이래로 세계정세를 관찰해 온 것과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연구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인간 역사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분쟁을 살펴보자. … 좋은 땅의 지주(地主), 좋은 땅의 합법적인 주인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인가, 아랍 국가들인가? …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지주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이 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나는 정치가들이 좋은 땅의 소유권을 놓고 협상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하늘들에서 웃고 계신다고 믿는다(시 2:4). … 주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이 문제를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오셔서 세상 정치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역대기상과 역대기하에 있는 연대기는 인간 역사 안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써 인성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 이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오늘날 세계정세의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사람들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와 관계있다. …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 모두가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말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 1장, 10-12쪽)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해결될 수 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첫 번째로 해결되는 것은 정의일 것이다. …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주님은 장래에 세상을 정의와 의로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전쟁은 끝날 것이다. … 이사야서 2장 4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모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모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어느 날 땅의 모든 민족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는 어떤 정부도 백성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땅에는 의와 정의가 가득할 것이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없다면, 구원은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워치만 니 전집, 60권, 고령 훈련 기록(2), 53장, 319-320, 323-324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 1, 7-8장; 워치만 니 전집, 60권, 고령 훈련 기록(2), 53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32-1949년, 2권, 영문판, 27쪽*

**4/4 화요일**

***아침의 누림***

**슥 9:9**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의 딸아, 크게 외쳐라! 지금 너의 왕께서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가져오시며 낮아지시어 나귀, 심지어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셨다.

**슥 13:1**  
**1** “그날에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죄와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

**마 9:36**  
**36**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졌기 때문이다.

**요 10:11**  
**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요 19:34, 37**  
**34**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37**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분을 바라볼 것이다.”

**슥 13:6-7**  
**6** 누가 그에게 ‘그대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들은 어떻게 된 것이오?’라고 하면,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오.’라고 할 것이다.”  
**7** “칼아, 깨어나서 내 목자를 치고 내 동료인 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목자를 쳐서 양들을 흩어지게 하여라. 나 내 손을 어린것들 위로 돌리리라.

---

스가랴서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에 밀접하게 연관되신 그리스도이시다. 처음 여섯 장은 그분께서 페르시아 제국에 연관되심을 계시하고, 나중 여섯 장은 그분께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연관되심을 계시한다. … 9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예언들의 중심은 배척받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다.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실 메시아로 계시되신다. …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은 겸손하고도 친밀한 것이었다 (비교 슥 9-11장). 그러나 …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는 능력과 권위가 함께 할 것이다(비교 슥 12-14장).

스가랴서 9장 9절은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가지고 의로운 방식으로 오실 것이며, 나귀 심지어 나귀 새끼를 타실 것임을 계시한다. 이 절은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취되었다. 그분은 왕으로서 오셨지만, 위풍당당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낮아지신 왕, 겸비하신 왕으로 오셨다.(스가랴 라이프 스타디, 12장, 205쪽, 9장, 189쪽)

***오늘의 읽을 말씀***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은 이스라엘의 합당한 목자이신 메시아께서 미움받으시고, 공격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노예 몸값인 은 삼십에 팔리셨음을 계시한다(출 21:32). 여기에 예언된 것은 복음서들에서 성취되었다. 주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팔리셨고, 로마 통치자들에게 심판받으셨다.

스가랴서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게 여기면 내 품삯을 주고, …’ 그러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삼십을 달아 주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미움받으시고, 공격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팔리셨음을 분명하게 가리킨다. 12절과 13절을 이해하려면, 또한 누가 은을 주었고 누가 그 은을 여호와의 집 안으로 던졌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복음서를 연구해야 한다.

여호와의 동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공격받으시고 죽으셨다(슥 13:7상, 마 9:36, 요10:11, 마 26:31, 행 2:23). 스가랴서 13장 7절은 “칼아, 깨어나서 내 목자를 치고 / 내 동료인 그 사람을 쳐라. /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 목자를 쳐서 / 양들을 흩어지게 하여라.”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자손의 친척이셨고 또한 여호와의 동료이셨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친척들은 그분께 상처를 입혔고, 하나님은 칼을 부르셔서 그분을 치게 하셨다. 그분의 친척들이 그분을 쳤고 하나님 또한 자신의 동료이신 그분을 치셨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셨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주 예수님은 목자를 치는 것에 관한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목자를 친다는 것은 목자를 공격한다는 뜻이다. 상을 세우신 직후에 주 예수님은 자신이 공격당하실 것과 양들인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스가랴서 13장 6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한다. “누가 그에게 ‘그대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들은 어떻게 된 것이오?’라고 하면,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오.’라고 할 것이다.” … 이스라엘 자손은 그분을 죽였지만, 그분은 그들의 행위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힌 것으로 여기셨다. 이것은 매우 달콤한 말이다.

하나님은 다윗 집과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열린 샘(그리스도의 찔린 옆구리—요 19:34, 37)을 마련해 주셨다. “그날에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죄와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슥 13:1) 그리스도께서 찔리심으로 그러한 샘이 열렸다. 이것은 구속의 문제이다.(스가랴 라이프 스타디, 11장, 201-202쪽, 13장, 217-219쪽)

*추가로 읽을 말씀: 스가랴 라이프 스타디, 1, 3, 5, 11-12장*

**4/****5 수요일**

***아침의 누림***

**슥 14:3-4**  
**3** 그때에 여호와가 나아가 전쟁의 날에 싸우듯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4**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

**슥 14:9**  
**9**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한 분 하나님이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만이 하나의 이름일 것이다.

**마 24:30**  
**30**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행 1:11**  
**11**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 여러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롬 11:26**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구원자께서 시온에서 나오시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계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

이 시대의 끝에 그리스도는 오셔서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다(슥 14:3-4). 여호와이신 그리스도는 천년왕국에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9절).

스가랴서에 계시되신 그리스도, 곧 열린 샘이 있는 찔리신 분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시다. 이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인간 역사에 밀접하게 연관되시는데, 특히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밀접하게 연관되신다.

특히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께 도움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태어나셨다. … 그분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성장하시고, 사역을 수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완성되었다. 교회의 형성과 복음 전파 역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일어났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법이나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로마 제국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로 만드시려는 의도를 이루시는 데 사용되었다.(스가랴 라이프 스타디, 14장, 226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스라엘은 대환난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의해 짓밟힐 것이다(계11:2). 게다가 대환난의 주요 재난들이 그 땅에서 발생할 것이다(마 24:16-22).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는 많은 유대인을 죽일 것이고 올리브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위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위험에 처한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때 온 이스라엘은 그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볼 것이고 슬피 울며 회개할 것이다(마 24:30, 슥 12:10). 그리스도는 올리브산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슥 14:4-5). 그리스도는 민족들을 심판하신 후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어, 사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은 땅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모으실 것이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복원될 때이며(마 24:31), 또한 만물의 복원을 가져올 것이다(행 3:21). 그때부터 왕국 시대가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최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징조, 7장, 91-92쪽)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우리는 두 번째 오실 때의 그리스도를 본다.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들의 왕이실 것이다(비교14:9). … 그분은 이 땅 전체를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고, 땅의 모든 백성들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장막절을 지킬 것이다(16절).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곳에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기 때문이다(슥 14:11). 저주 대신 축복과 안전이 있을 것이다. … 예루살렘을 치러 온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이들은 모두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해마다 올라와서 장막절을 지킬 것이다(16절). 누구든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죄가 될 것이다(17-19절). … 은혜 시대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마 5:45). 그러나 장차 올 의의 시대에 …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께 경배하지 않고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 (스가랴 라이프 스타디, 15장, 235-236쪽, 14장, 222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최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징조, 7장*

**4/6 목요일**

***아침의 누림***

**슥 1:8, 20-21**  
**8** 내가 밤에 보니, 보아라, 한 사람이 붉은색 말을 타고 골짜기 바닥 화석류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데, 그분 뒤에는 붉은색 말과 적갈색 말과 흰색 말이 있었다.  
**20**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네 장인을 보여 주셨다.  
**21** 내가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라고 하자, 그가 대답하였다. “유다를 흩어지게 하여 아무도 그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든 뿔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유다 땅을 향해 뿔을 들어 백성을 흩어 버린 민족들의 뿔들을 내던져 버리려고 온 이들입니다.”

---

**단 2:31-35**  
**31** 왕이시여! 왕께서 보시니, 거대한 형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크고 대단히 번쩍이는 형상이 왕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그 모양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32** 그 형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고,  
**33** 다리는 쇠이며,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34**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35** 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

스가랴서 1장 8절 상반절의 이 사람은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이다. … 이 절의 이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이다(11상절). 여호와의 천사는 삼일 하나님이신 여호와 자신이시다(출 3:2상, 4-6, 13-15). 여호와의 천사는 또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자(골 2:9)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요 5:36-38, 6:38-39) 그리스도이시다. 여호와의 천사는 또한 이집트에서 약속된 땅으로 가던 길에서,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천사이시다(출 23:20, 32:34, 삿 6:19-24, 사 63:9).(스가랴 라이프 스타디, 2장, 136-137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 이상에 나오는 사람은 붉은색 말을 타고 있다(슥 1:8상). … 여기의 붉은색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구속 안에서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것을 상징한다.

스가랴서 1장 8절 중반절에 언급된 이 화석류나무들은 포로 된 상태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 포로 된 이스라엘은 골짜기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신속하게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다. 붉은색 말 위에 계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보호자이셨다.

“그분 뒤에는 붉은색 말과 적갈색 말과 흰색 말이 있었다.”(슥 1:8하) …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붉은색 말)이 회개한 이스라엘(적갈색 말)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신속하게 의롭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함(흰색 말)을 의미한다. ‘붉은색’이라는 표현은 구속을 가리키며, ‘적갈색’은 혼합을 가리킨다. 결국 흰색 말로 상징되듯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와서 처리받을 때, 그들은 의롭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 우리는 네 뿔과 네 장인에 대한 이상을 본다.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네 뿔이 있었다. 나는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말하였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 버린 뿔들입니다.’ ”(슥 1:18-19) 이 네 뿔은 왕이 다스리는 네 제국 곧 바빌론과 메도-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으로서, 이 네 제국은 다니엘서 2장에서는 거대한 인간 형상으로,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해치고 멸망시킨 네 짐승으로 상징된다.

스가랴서 1장 20절과 21절에 언급된,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을 포함하는 네 장인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이 제국들과 그들의 왕을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 솜씨들이다. 그리스도는 장인들 중 하나로서,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로 오셔서 그 거대한 형상을 산산이 부서뜨리실 것이다. 앞의 세 제국인 바빌론과 메도-페르시아와 헬라는 각각을, 뒤이은 제국이 솜씨 좋게 점령하였다. 어느 날 밤에 메디아의 다리오가 와서 벨사살을 패배시켰을 때, 바빌론은 패배당했다. 다리오는 얼마나 솜씨가 좋았는지! 그 다음으로 다니엘서 8장이 계시하듯이, 마케도니아(알렉산드로스 대왕 통치 아래 있던 헬라 제국)의 숫염소가 와서 페르시아의 숫양을 짓밟았다. 역사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매우 솜씨가 좋았음을 말해 준다. 그는 네 뿔을 처리한 장인들 중 하나였다. 나중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여 헬라 제국을 처리하였다. 이 네 제국이 인간 역사의 중심 요인들이다. 마침내 복원된 로마 제국은 최고의 장인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네 제국은 모두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멸망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네 장인에 의해 멸망했으며, 복원된 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장차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스가랴 라이프 스타디, 2장, 137-138, 140-142쪽)

*추가로 읽을 말씀: 스가랴 라이프 스타디, 2장; 호세아-말라기 라이프 스타디, 10-16장*

**4/7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계 19:7-8, 14**  
**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14**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

**엡 5:26**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엡 6:17-18**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계 22:17**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

요한계시록 19장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 세워진 신부인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를 대항해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전투원이다.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은 먼저 신부를 만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맞이하신 후에, 그리스도와 이기는 이들은 원수와 맞서 싸우기 시작할 것이다. … 주님은 흰색 말을 타실 것이며(11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를 것이다(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도 이것을 언급한다. “그들이 어린양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름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그들을 이길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는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14절에서는 전쟁에서 주님을 따르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97장, 879-880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인 우리는 단지 몸,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가족, 새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신부와 전투원이기도 하다. 신부로서 우리는 아름다워야 하고, 점도 주름도 없어야 하며,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전투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우도록 반드시 무장해야 한다(비교 엡 5-6장, 계 19장).

자아가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죽이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한편으로는 자양분을 얻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요소들이 죽음당한다. 어쩌면 우리는 의심과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통해 이런 것들을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죽이는 능력을 가진 말씀을 취할수록, 우리의 교만과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은 더욱더 죽음당하게 된다.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내부의 대적이 죽는다. 한 차례 말씀을 기도로 읽은 후에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던 대적이 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실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안으로 취한 말씀에 의해 대적이 죽음당한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은 신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은 죽이기 위한 것으로서 단체적인 전투원인 교회가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97장, 880, 886, 888쪽)

그리스도는 그분의 결혼 날에,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원수와 대항해 전투를 치러 온 이들과 결혼하실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이들, 곧 이미 악한 자를 이긴 이들과 결혼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맞서 싸우러 오실 때, …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은 그분과 어울리고 그분을 온전하게 할 배필이 필요하실 것이다. 이 배필이 그분의 신부일 것이다. 인간 정부를 산산이 부수러 오실 때,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인 이기는 이들과 함께하는 남편이실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열 발가락을 처리하시고 그런 후 형상 전체를 처리하시기 전에 결혼식을 치르실 것임을 의미한다(계 19:7-9). 결혼식 후에 주님은 갓 결혼한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셔서, 적그리스도 곧 자기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께 직접 대항해 싸우려는 자를 멸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와 결혼하신 후,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로 오셔서 거대한 인간 형상을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산산이 부수시어, 하나님을 직접 대항해 싸우는 인간 정부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간 정부를 산산이 부수심으로 온 땅이 깨끗이 정리될 것이다. 옛 창조물에 속한 인간 정부라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는 돌에서 온 땅을 채우는 큰 산으로 증가하실 것이다(단 2:35).(다니엘 라이프 스타디, 13장, 91-92, 94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95, 97장; 다니엘 라이프 스타디, 12-13장*

**4/8 토요일**

***아침의 누림***

1. **슥 12:1**  
   **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부담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
2. **슥 10:8**  
   **8**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니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아들일 것이며 그들은 전에 번성하였던 것처럼 번성하리라.
3. ---
4. **창 2:7**  
   **7**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5. **요 4:24**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6. **빌 4:23**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7. **고전 2:14-15**  
   **14**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그런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

하늘들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 역사와 정치에 밀접하게 연관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구약에, 스가랴서 12장 1절과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은 놀랍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그분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로 삼으시는 것이었음을 가리킨다.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수천 년 동안 해를 거듭하여 세계정세를 주관하심으로 인류 전체를 다스리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곧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자로 사랑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종의 받아들이는 기관을 창조하실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온 존재를 받아들일 역량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놀라우시지만, 우리에게 영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 우리가 우리 사람의 영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을 접촉할 길이 없을 것이다.(스가랴 라이프 스타디, 12장, 206쪽)

***오늘의 읽을 말씀***

스가랴서 10장의 예언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애정 어린 방식으로 방문하시는 것에 관한 것이다. … 이러한 애정 어린 방문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것이다.

“‘봄비 때에 / 여호와 곧 번개를 만드는 여호와에게 / 비를 구하여라. / 그가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 / 각 사람에게 밭의 푸성귀를 주리라.”(슥 10:1) … 더 많은 비를 구한다는 것은 더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분께서 그들을 은혜롭게 대하실 때 복을 더 많이 구하라고 격려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많이 베푸시는 동안에, 우리는 그분께 훨씬 더 많은 은총을 보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나기를 내리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께 더 많은 비를 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넘치는 복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가리킨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 양 떼인 유다 집을 방문하였고 / 그들을 전쟁터의 위풍당당한 말처럼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슥 10:3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오실 때 이렇게 은혜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이었다. 그분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오셨다. 이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양 떼의 목자에 대해 말한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셨다. … 그분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셨다 (요 10:11, 14-15).

그분은 그분의 양 떼를 방문하심으로써 그들을 위풍당당한 말처럼 만드신다. 우리는 양인가 아니면 위풍당당한 말인가? 우리는 모두 전진하여 더 이상 양이 아닌 위풍당당한 말이 되어야 한다. 목자가 만지신 후에 약한 양들은 모두 위풍당당한 말이 될 것이다.

스가랴서 10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애정 어린 방식으로 방문하신 것의 더 전진된 방면들을 계시한다. … 8절에 언급된 주님의 휘파람은 날카롭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다소 새의 노랫소리와 같다. 우리가 아침 부흥의 시간을 갖는 동안 주님은 자주 우리에게 휘파람을 부시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고 모으신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그들을 강하게 하리니 / 그들이 그의 이름 안에서 행하리라. / 여호와의 선포이다.’ ”(슥 10:12) 여기에서 ‘내가’는 여호와이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분 자신 안에서 강하게 하실 것임을 가리킨다. 그러면 그들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행할 것이다. 어떤 사람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의 실재인 그 사람의 인격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이다.

종종 우리가 이러한 애정 어린 방문을 누린 후에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 그분은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구하라고 격려하신다. …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거나 견고하지 않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셔서 애정 어린 방식으로 만지시면, 우리는 강하게 되어 싸우는 위풍당당한 말들이 된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 안에서 강하게 하셔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스가랴 라이프스타디, 10장, 193-198쪽)

*추가로 읽을 말씀: 스가랴 라이프 스타디, 9-10, 13-15장*

**추가로 읽을 말씀** *스가랴 라이프 스타디, 15장*

1. **4/9 주일**

***아침의 누림***

1. **롬 5:8-11, 17-21**  
   **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9**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11**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19**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은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찬송: 16 (英) 오 아버지는 소나무처럼  (中:11)**

**1** 상록수처럼 새-로운- 우리의 아버지  
영원히 쇠하지- 않고- 늘 살아 계시네

**(후렴)**

늘 새로우신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천만 년 가도 신선해- 영원히 영원히.

**2** 새로운 하나님- 없으면 다 낡아져가도  
아버지 계시면- 새로워 세월 지나가도

**3** 우리가 얻은 아-버지- 복 모두 새로워  
새 언약 새 길 모-두 다- 영원히 새롭네

**4** 오 우린 주의 새- 창조- 날로 더 새로워  
새 마음 새 영 강-건해- 새 생명 충만해

**5** 새 하늘 새 땅 새- 성엔- 모두가 새로워  
달마다 새 실과- 맺어- 묵은 것이 없네

**6** 오 새로우신 아-버지- 늘 찬양하겠네  
늘 새로우신 아-버지- 영영 찬미하리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4:1-25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7장, 8장

**2단계-주제별 연구**

***God's Righteous Judgment of Unrighteous, Self-righteous, and Religious Mankind***

로마서 1:18-3:20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msgs. 3-4; *Conclusion of the New Testament: The Church, the Kingdom, and the New Jerusalem*, msg. 221

[churchinnyc.org/bible-study](http://churchinnyc.org/bible-study)